



# CONTENTS

## 목 차

### 요 약

---

#### I. 미중 통상분쟁 확산 동향 / 1

---

-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1. 관세 조치                    |
| 2 | 2. 개별기업 제재 (中 화웨이, 美 페덱스 등) |
| 4 | 3. 투자제한 조치                  |
| 5 | 4. 금융 조치 (환율, 美 국채 매각 등)    |
| 7 | 5. 수출입 제한 (희토류, 대두 등)       |
| 9 | 6. 기타 (유학생/관광객 제한, WTO 제소)  |

#### II. 주요국 기업 동향 / 10

---

- |    |          |
|----|----------|
| 10 | 1. 미국    |
| 10 | 2. 중국    |
| 11 | 3. 대만    |
| 11 | 4. 말레이시아 |
| 12 | 5. 싱가포르  |
| 12 | 6. 태국    |
| 13 | 7. 인도네시아 |
| 13 | 8. 인도    |

## 요 약

### □ 미중 통상분쟁 확산 동향

- (관세) 3차에 걸쳐 미국은 2,500억불에 25%, 중국은 1,100억불에 5~25% 관세를 既 부과하던 중 '19년 8월 분쟁 심화되며 사실상 양국의 전 수입품목에 관세 부과 및 既 부과 관세도 인상
- (개별기업) 미국은 화웨이 본사 및 114개의 계열사를 미국의 수출통제목록에 추가하였으며,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외국기업 블랙리스트 지정 계획 발표 및 페덱스에 대한 조사 착수
- (투자제한) 미국은 대미 투자제한 목적의 외국인 투자 위험조사 현대화법을 최종 입법화하고, 중국은 미국기업에 대한 투자 관련 활동에 승인을 지연하는 하는 등의 조치 진행
- (금융)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통화평가절하 국가에 상계관세 부과 계획 발표, 중국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에 대한 매각을 하나의 조치 방안으로 고려
- (수출입) 중국은 미국에 대한 압박 목적으로 희토류 대미 수출 제한을 고려 중이며, 미국산 대두 수입을 분쟁 경과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음
- (기타) 중국은 미국 유학 경계령, 여행 자제령을 발령한 바 있으며, 양국은 WTO에 추가 관세 부과를 두고 상호 제소 중인 상황

### □ 미중 통상분쟁 확산 동향에 따른 주요국 기업 동향

- (미국) 3,000억불 관세 부과 품목에 소비재 비중 높아 업계의 우려 목소리 존재하나, 정부는 중국과의 협상 지속에 대한 의지 보이고 있음
- (중국) 미중 통상분쟁에 대한 장기화를 감안하고 있는 기조이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협상 지속에 대한 의사는 보이고 있는 상황임
- (대만) 생산라인이 본국으로 리쇼어링 되는 움직임 다수 및 미국의 대중수입 대체처로 오더 증가
- (말레이시아) 양국의 수입 대체처, 재중 기업의 투자 이전처로 고려되고 있음
- (싱가포르) 중국에서 공정 진행 후, 대미수출하는 기업들의 생산 고정 리로케이션 움직임 존재
- (태국) 내수 판매 강화 및 제품군 다변화로 대응 중이며 재중기업 투자 이전 기대 목소리
- (인도네시아) 재중기업의 투자 이전처로서 인력 등 장점 많아 대형투자 이전 유치 성과 보유
- (인도) IT 분야에서의 강점과 큰 시장 있어, 스마트폰, 자동차, 스타트업 분야의 투자 유치 활발

# I. 미중 통상분쟁 확산 동향

## 1 관세 조치

※ 3차에 걸쳐 미국은 총 2,500억불(對中수입의 46%), 중국은 총 1,100억불(對美수입의 72%) 규모의 수입품에 상호 보복관세 既부과 중  
 - 美→中 : (1차)340억불 25%(18.7.6), (2차)160억불 25%(8.23), (3차)2,000억불 25%(9.24)  
 - 中→美 : (1차)340억불 25%(18.7.6), (2차)160억불 25%(8.23), (3차)600억불 5~25%(9.24)

□ 미중 통상분쟁 재점화('19.5) 이후 처음으로 재개된 무역협상이('19.7.30-31) 성과 없이 끝나며 8월 이후 또 다시 양국의 분쟁 심화 양상

① (美) 既 조치 2,500억불 이외 신규 3,000억불 규모의 對中수입품 중  
 1) 일부 품목은 부과일 연기(9.1→12.15), 2) 3,000억불 전체에 대해 10→15%로 관세 인상(9월 1일부)

\* (경과) 3,000억불 규모의 관세 부과 리스트 발표(5.17)→관세 부과일을 9월 1일로 확정 발표(8.1)→일부 품목 관세 부과일을 12월 15일로 연기(8.13)→3,000억불에 대한 관세를 10%에서 15%로 인상(8.23)

○ (9월 1일) TV, 카메라, 데스크탑 컴퓨터, 의류, 신발, 골프채 등 3,243개 1,120억불 규모

○ (12월 15일) 휴대폰, 노트북, 비디오 게임 콘솔, 장난감, 컴퓨터 모니터, 신발, 의류 등 556개 1,560억불 규모

- (부과 연기 이유) 연말 쇼핑 시즌에 美 소비자에 미칠 영향을 감안

② (美) 既 조치 중인 2,500억불에 대한 25% 관세를 30%로 인상(10월 1일부)

③ (中) 3,000억불에 대한 대응으로 750억불 규모의 對美수입 5,078개 품목에 9월 1일, 12월 15일에 걸쳐 5~25% 관세 부과 발표

\* 신규 품목은 약 62억불 규모, 나머지는 既 부과 품목(中광다증권)

○ (9월 1일) 대두, 원유(5%), 돼지고기, 소고기(10%) 등 1,717개 품목

○ (12월 15일) 광학, 정밀 기계, 자동차 부품(5%), 수수, 밀, 면화(10%), 자동차(25%) 등 3,361개 품목

## 2 개별기업 제재 [中화웨이, 美페덱스 등]

- ① (美) 中 화웨이 본사 및 114개 해외관계사를 美수출통제목록에 추가
- 3,000억불에 대한 조치 개시 후,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(BIS)은 화웨이 및 68개 해외관계사를 수출통제목록(Entity List)에 추가한다고 발표('19.5.19)
- \* Entity List : 미국의 안보 및 외교 정책에 위해가 되는 기업, 개인, 정부 등을 목록화하여 미국기업이 거래 이전 정부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수출행정규정
- 이후 상무부는 46개 해외관계사를 2차로 목록에 추가('19.8.19)
  - 구글, 퀄컴 등 美 기업들은 화웨이에 부품, 기술, SW 거래 시(수출, 재수출, 기술이전 등), 美 정부의 사전 허가를 得해야 함
  - 또한 위반 적발 시 강력한 민·형사 상 처벌
  - 논란 가중되자 美 상무부는 90일자 일반 수출 라이선스를 발행하는 방식을 통해 한시적으로 수출 통제를 2차례 연기('19.5.20, '19.8.19)
  - 단, 수출 라이선스 발급(제재 연기) 조치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입장
  - \* 상무부, 화웨이 장비로부터 다른 회사 장비로 옮겨가는데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
  - '19년 11월 18일까지 기한
- ② (中) 신뢰할 수 없는 외국기업 블랙리스트 지정 계획 발표('19.5.31)
- 비상업적인 이유로 중소기업에 차별, 공급 중단, 실질적 손해 등을 통해 국가 안보 위협하는 외국법인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관리할 계획
  - 요건 : ① 중소기업 및 개인에 대한 봉쇄, 부품 공급 중단, 차별적 조치, ② 비상업적 목적으로 시장 규칙 및 계약 정신 위배, ③ 중소기업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실질적 손해, ④ 국가 안보에 직접적, 잠재적 위협 등의 요건 충족 시 조치
  -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외국기업은 중국의 대외무역법, 반독점법, 국가 안전법 등에 따라 조치될 예정

③ (中) 美 페덱스에 대한 중국 택배법 위반 조사 개시('19.6.1)

- 中 정부, 美 페덱스가 화웨이의 화물을 잘못 운송한 사실이 드러나자 중국 택배업 규정 위반을 들어 조사에 착수
  - 일본→화웨이 중국 사무실로 보낸 화물 2건 및 베트남→화웨이 홍콩, 화웨이 싱가포르로 보낸 택배 2건을 美 페덱스 본부로 운송('19.5.19-20)
  - 중국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 상황에서 정부 개입 및 고의성 의심된다고 주장 vs 美 페덱스는 단순 배송 오류라 주장하며 사과

④ (中) 對美보복으로 평가되고 있는 포드社, 보잉社에 대한 조치('19.6.5)

- (포드社) 반독점법 위반 이유로 창안 포드社에 대한 벌금 부과 조치(6.5)
  - \* 근거 : 자동차 딜러들에게 완성차를 판매할 때 최저 가격을 유지할 것을 강요
  - \* 벌금 규모 : 1억 6,228만 위안(한화 276억원)
- (보잉社) 300억불 규모의 787 드림라이너, 777X 기종 100대 구매건 무기한 연기(6.5)

### 3 투자제한 조치

#### ① (美) 중국에 대한 對美 투자제한 목적의 법령을 입법화('18.8.13)

- 대미외국인투자승인위원회(CFIUS) 권한 강화 및 개혁법안인 외국인 투자 위험조사 현대화법(FIRRMA)이 최종 입법화
  - \* FIRRMA(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)
  - 행정부에 외국인 투자의 국가안보 침해여부 검토권한을 부여하고, 대통령은 안보위협 소지가 있는 투자거래 취소명령 가능
  - 규제심사 대상에 군 시설 주변 투자, 핵심 기술 및 기간산업 투자, 해외기관의 특수목적 기술획득까지 확대
  - 즉, 중국 등 외국인 투자의 검토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 시, 거래 취소,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CFIUS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것이 골자
- 외국인투자 위험조사 현대화법을 활용한 중국기업 투자 제한 사례
  -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시장 진출, 브로드컴의 美 퀄컴 인수, 알리바바 금융 자회사 앤트 파이낸셜의 美 머니그램 인수 등을 불허

#### ② (中) 중국의 미국기업에 대한 투자 관련 활동 제재('18.6)

- (퀄컴) '16.10월 미국 반도체 회사인 퀄컴은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인 NXP 인수를 발표하였으나, 중국은 '18년 6월에서야 인수 합병에 승인
  - 퀄컴의 NXP 인수를 위해 세계 9개 주요 규제 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나 중국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함
  - 중국이 승인을 미룬 이유는 퀄컴이 NXP를 인수하면 특정 시장의 지배력이 강화되어 반독점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

## 4 금융 조치 (환율, 美 國 債 매 각 등)

### 1 (美) 對 中 환율조작국 지정(19.8.5) 및 상계관세 부과 규정 추진(19.5.23)

\*환율보고서 : 美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(1988)과 교역촉진법(2015)에 따라 매년 반기별(4,10월)로 주요 교역국의 경제·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

- (근거) 중국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, 자국통화 평가절하 자제에 대한 G20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(19.8.5)
- (경과) 미중 무역협상 성과 없이 종료(7.30-31)→對中 수입품 3,000억불 관세 부과 발표(8.1)→중국,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, 포치(破七) 묵인(8.5)
  - \* 포치 : 위안화 환율이 1달러 당 7위안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. 글로벌 금융위기('08.5) 이후 한 차례도 넘지 않은 심리적 마지노선
- 美 재무부는 '19년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평가 대상 국가를 기존의 13개→21개 국가로 확대하고, 환율조작국 요건 중 일부 강화
  - 단, 중국·한국 모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
  - \* 중국은 하기 1항, 한국은 2항 요건에 해당

< 美 재무부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> (자료: 美 재무부)

	기 준	기 존요건	변경요건('19.5~)
평가 대상 국가	수출입 규모	13대 교역국	21대 교역국
(1)대미무역수지	대미무역수지 흑자규모	200억불 초과	
(2)경상수지 흑자	경상수지 흑자비율	GDP比 3%	GDP比 2%
(3)외환시장개입	순매수 규모	GDP比 2%	
	순매수 지속기간	12개월 중 8개월	12개월 중 6개월

- 1년간 환율 문제 개선을 위한 양자 협의 진행, 실패 시 4개 직접 제재 가능
  - ①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: 해당국 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(OPIC) 자금지원 및 보증 금지
  - ② 미국 연방정부 조달 계약 금지
  - ③ IMF 추가 감시 요청
  - ④ 무역협정과의 연계조치 시행



- **美 상무부, 달러比 자국 통화 평가절하 국가에 상계관세 부과 규정 추진**
  - 인위적인 자국통화 평가절하는 기업의 수출 경쟁 환경을 돕는 ‘**통화 보조금**’이라는 주장
  - 관세부과 여부를 확정하는 ‘**인위적 평가절하**’ 판단은 **美 재무부가 담당**

**② (美) 뉴욕 증시 상장 중소기업 금융 감독 의무화 법안 제출(19.6.8)**

- **중기업이 재정, 회계감사 자료를 ‘상장기업 회계감사 위원회(PCAOB)’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, 미국에서 거래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**
  - \* 상장기업 회계감사 위원회(PCAOB) :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
  - \* 마크 루비오(공화당), 크리스틴 길브랜드(민주당) 상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
- **美 자본에 접근하거나 뉴욕 증시에 상장하려는 中 기업은 재무 투명성과 관련한 미국내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**
- 법안에는 ① **중기업의 이사회, 공산당 관계자 및 정부 지분 포함 여부 공개**, ② **美회계규칙 3년 연속 위반 시 상장 취소 등의 내용 포함**

**③ (中) 미국 국채 매각**

- **중국은 현재 美 국채 2위 보유국(1조 1,130억불, 19년 6월말 기준)**
  - **외국이 보유한 美 국채 중 16.8% 비중**
    - \* 美 국채 보유 순위 : 1위 일본(1조 1,230억불), 2위 중국(1조 1,130억불), 3위 영국(3,410억불)
- **1차 관세 부과 月에 202억불 매각(18.7), 2차 관세 부과 月에 59억불 매각(18.8), 3차 관세 부과 月에 137억불 매각(18.9)**

<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현황 > (자료: 美 재무부)

단위:억불	2018년						2019년					
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국채보유액	11,710	11,651	11,514	11,389	11,214	11,236	11,267	11,309	11,205	11,130	11,100	11,130
보유변화액	-202	-59	-137	-125	-175	22	31	42	-104	-75	-30	+30
비중	18.7	18.6	18.5	18.4	18.1	18.0	17.8	17.7	17.3	17.3	17.0	16.8

## 5 수출입 제한 (희토류, 대두 등)

### ① (中) 희토류 對美 수출 제한 고려

- 중국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매장국(4,400만톤, 세계 총 매장량의 37%)이며, 희토류는 중국, 미국, 인도, 호주, 러시아, 브라질 6개국에 집중 매장
  - \* 중국의 희토류 미확인 매장 및 부존량은 최대 1억톤에 이를 것이라 추정
  - 희토류는 열전도가 우수한 화학성질 보유하여 휴대전화, 반도체, 전기차, 미사일, 레이더 등 신재생에너지, 농업, 의류, 첨단 분야에서 필수
- 미국이 수입한 희토류의 80%가 중국산(18년 기준)이며 미국은 자체 희토류도 비축하고 있으나 중국산 쓰지 않고는 어려운 산업 구조
  - 희토류 정련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문제 심각해 선진국들은 희토류 정련을 꺼리고 있으며 실제 생산에서 사업화까지 2~5년의 시간 소요
  - 하여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시, 美 IT, 첨단전자, 군수업, 전기차, 합금, 촉매제, 레이저 소자 산업에 영향
- 시진핑은 중국의 희토류 최대 매장지에 방문하여 ‘희토류는 중요한 전략적 자원’이라 발언한 바 있음(19.5.20)
  - 중국은 과거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도 희토류 수출 제한 및 對日 관광금지 조치를 既 시행한 바 있음(10년 9월)
  - 이에 일본은 분쟁 이후, 희토류 수입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의존도 50%에 육박
- 단, 미국은 호주 등 대체소싱처 발굴 및 희토류 추출 신기술 개발 중, 중국은 과거 WTO에서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한 위반 판결 경험 존재
  -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 줄이기에 나설 가능성
  - 중국은 희토류 수출 쿼터를 40%로 제한한 뒤(10년), WTO 규정 위반 판결을 받아 쿼터를 폐지한 전례가 있음(15년)

## ② (中) 대두, LNG 對美 수입 제한

- (대두) 미중 통상분쟁 경과에 따라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과 재개를 반복
  - 미국산 대두에 25% 관세 既부과 및 수입 중단('18.7)→유화 제스처로 수입 재개('18.12)→분쟁 재점화로 수입 중단('19.5)→수입 재개('19.8)
  - 중국은 세계 최대의 대두수입국이며 매년 3,000만톤의 미국산 대두를 수입해 왔으나, 미중 분쟁 이후 아르헨, 브라질산으로 전환 움직임
    - \* '19년 1~6월 중국의 對아르헨 대두 수입 : 240만톤(전년 동기 대비 10배 수준)
  - 대두집산지인 중서부 팜벨트 지역의 농부들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기 때문에 대두는 '정치적 곡물'이라는 평가
- (LNG) 미국산 LNG 수입을 직접 제한한 것은 아니나, 6월 1일부로 25% 관세가 인상되며 사실상 수입 중단 및 신규 프로젝트 계약 전무
  - 이미 중국의 가스 수요 증가로 인한 부족분은 호주산으로 대체된 상황, 미국산 LNG 수입은 80% 급감
  - 또한 美 LNG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위해 장기 계약이 전제되었으나, 미중 분쟁 후 신규 계약 체결은 전무한 것으로 추정
  - 심지어 美 세니에르 에너지社가 '23년부터 中國영기업 시노펙에 연간 200만 LNG를 공급하기로 20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으나 연기

## ③ (中) '국가 기술 안보 관리 리스트' 제도 구축 계획 발표('19.6.8)

- 中 국가개발개혁위원회, 중국의 핵심 기술에 대한 선도적 발전과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보호벽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
- 수출 통제(희토류 등), 특정 미국 기업을 목표로 한 기술 통제 조치 등 구체적인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으며 추후 발표할 계획

## 6 기타 (유학생/관광객 제한, WTO 제소)

### ① (中) 미국 유학 경계령(19.6.3) 및 여행 자제령(19.6.4) 발령

- 中 교육부, 미중 통상 갈등의 여파로 미국 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근거 들어 '유학 경계령' 발령
- 中 문화여유부, 미국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총격 강도 및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안전 상의 근거 들어 '여행 자제령' 발령
  - \* 중국 관광객은 290만명 규모, 관광비 연간 364억불 소비
- 對中 항공편의 50% 차지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항공 및 티파니社 등 보석, 화장품, 전자제품 등 소비재 업계 영향 가능성

### ② (美, 中) WTO에 제소 : 미국이 중국 대상으로 2회, 중국이 미국 대상으로 4회

- (美→中) 중국기업이 특허사용 계약 종료 후에도 무단 사용하여, 미국기업 등 특허보유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제소(18.3.23)
- (中→美)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제품에 25%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WTO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을 제소(18.4.4)
- (中→美)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,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는 세이프가드 규정 및 양허관세 원칙 위반이라며 제소(18.4.5)
- (美→中) 중국의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제소(18.7.16)
- (中→美) 미국이 발표한 2,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% 추가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WTO 규범 위반 근거로 추가 제소(18.8.23)
- (中→美) 미국의 3,000억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WTO 규범 및 미중 정상회담 합의에 위배(19.9.2)

## II. 주요국 기업 동향

### 1 미국

- 3,000억불 관세 부과 품목 소비재 비중 높아 美업계의 우려 목소리도 존재하나, 협상 지속에 대한 예측 다수
  - (정부) 관세 부과와는 별개로 중국과의 대화 지속하고 있으며, 9월 회담은 예정 그대로 진행될 예정(8.30, 9.1 두 차례 발언)
  - (업계) 전미소매업협회 등 160여개 美 기업협회, 소비자 가격 인상 우려 의견 표명하며 3,000억불에 대한 관세 인상 연기 요청 서한 송부(8.28)
    - \* 참여협회 : 전미소매업협회, 장비제조업협회, 소비자기술협회, 완구협회 등
  - (신발) 아디다스, 풋락커 등 9월 1일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일반 가정이 관세 인상의 피해자 될 것이라 주장(8.28)
  - (소비자기술협회) '18년 7월 이후, 전자제품업계는 100억불 규모 타격 입었으며, 향후 520억불 규모의 소비재가 관세 영향 받을 것(9.1)
  - (애플) 3,000억불 관세 부과로 5억불 규모의 피해 예상되며, 다른 국가의 전자기업과 경쟁하기 힘든 상황이라 발언(9.1)
    - 인도 정부는 애플 중국 공장→인도 이전을 두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(8.30, CNBC)

### 2 중국

- 미중 통상분쟁의 장기화를 받아들이는 기조이나, 지속적인 협상에 대한 의지 보이는 상황
  - (상무부) 미-중 협상팀이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, 9월 미국에 가서 협상하는 문제를 현재 논의 중(8.30)

- (환구시보, 인민일보) 미국의 관세 조치는 중국의 발전 막지 못하며, 스스로 미국 국민의 발을 짚는 행동(9.1)
  - \* 중국은 장기전을 각오하고 있으며, 다급한 쪽은 '20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
- (CCTV) 3,000억불 관세 부과로 美 경제와 소비자가 희생 치를 것(9.1)

### 3 대만

- 중국의 對美수출 관련 업종은 생산 라인이 대만으로 리쇼어링 되는 움직임 다수, 미국의 對中수입 대체처로 오더 증가
  - (리쇼어링) 대만의 10대 전자제품제조社 가운데 7개社가 이미 리쇼어링 했거나 추진 고려(대만 경제부 발표, 5.20)
  - (투자이전) 생산비용을 고려하여 동남아 이전을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, 일부는 최종 판매시장과의 접근성 고려하여 對美 투자

### 4 말레이시아

- 특정 분야에서 미중 양국 수입품의 대체 가능성 있으며, 재중 기업이 투자 이전처로 고려하는데 우선순위를 가진 국가
  - (투자이전) 재중기업의 말련 투자 이전과 관련한 문의 다수 존재, 특히 철강, 태양광 업계가 관심 표명
  - (미국산 대체수입) 전자집적회로, LNG, 통신장비 분야에서 미국산 수입품 대체가능성 존재(노무라 글로벌마켓 리서치)
  - (중국산 대체수입) 고무 산업에서 중국산 대체 가능성 존재
  - 최근 달러화 대비 링깃 약세로 말련의 수출경쟁력은 높아질 전망

## 5 싱가포르

- 미중 분쟁으로 對中수출 감소세 뚜렷. 중국에서 공정 진행 후 對美수출 하는 기업들의 생산 공정 리로케이션 움직임
  - 관세 부과와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 감소로 주문 감소 및 중단, 최소주문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
  - (반도체, 반도체 제조기기) 생산 공정의 마지막 단계를 중국에서 수행 하는 경우 많아 對美수출 시 타격. 이에 말련으로 생산 공정 이전 계획
  - 재중기업의 對베트남 투자이전으로 산업단지 개발 관련 기업 수혜 존재
  - 전반적으로 기업 확장 전략은 배제하고 소비자 및 공급처 다변화, 가격 탄력성 낮은 제품에 대한 생산 증가 등의 전략을 실행하는 추세

## 6 태국

- 수출 감소 피해 최소화 위해 내수 판매 강화, 제품군 다변화로 대응 중, 전자, 첨단 분야에서 재중기업의 투자 이전 기대
  - (투자이전) 로봇틱스, 항공기 부품, 자동차, 컴퓨터 부품, 전자제품, 전력기자재, 농업용 기계 등을 중심으로 투자 이전 기회 포착
    - 할리 데이비슨(美, 오토바이), 리코(日, 전자), 델타 일렉트로닉스(日, 전자) 등이 태국으로의 투자 이전 既 확정
  - 식품 등의 산업에서는 수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품군 다변화 및 내수 판매 확대 전략 활용

## 7 인도네시아

- 재중기업의 투자 이전처로서의 장점 보유(인력 등) 및 기업의 전략적 결정에 의해 투자 유치 성과 보유
  - (투자이전) 애플(제조는 페트라곤社) 등 대형 투자 이전 유치
    - (애플) 아세안 지역 중 인력 공급이 원활하여 맥북, 아이패드 생산 이전 결정지가 베트남에서 인니로 변경, 공장 가동될 예정('19.6)
  - 섬유봉제, 신발제조 분야는 인건비 저렴, GSP 특혜 관세 혜택 보유 등 이유로 인니 투자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

## 8 인도

- IT 관련 분야에서의 강점 및 세계 2위의 내수 시장 규모 보유로 스마트폰, 자동차, 스타트업 분야의 투자 이전 및 확대 추세 뚜렷
  - (휴대폰) 애플, 샤오미 등 글로벌 스마트폰 대표 제조社들의 인도 내 투자 이전 및 생산 확대 움직임 다수 포착
    - (애플) 인도 협력업체 Wistron社는 구형 아이폰 '19년 4월부터 생산 시작, 홍하이社는 신형 아이폰 연내 생산 예정
    - (중국계) '16년부터 인도 시장점유율 확대 중인 중국의 샤오미, 비보, 오포 등 제조사 또한 중국 아닌 인도에서의 현지 생산을 늘리고 있음
      - \* (샤오미) 연내 인도 내에 3개의 생산 설비를 추가한다고 발표('19.3)
      - \* (TCL)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에 3억불 규모의 공장설립 계획 발표('19.4)
  - (자동차) 완성차 기업에 의한 생산설비 공장 신설 및 투자 확대
    - (상하이차) 인도 GM 공장을 인수하는 등 투자 추가확대, 향후 2년간 4개 자동차 모델 출시 예정
  - (VC) 中 알리바바는 인도 스타트업 투자 위한 자회사 설립, 소프트뱅크는 자회사인 Vision Fund社 통해 현재 스타트업 투자 진행 중. /끝/



## 작 성 자

- 타이베이무역관      유 기 자
- 쿠알라룸푸르무역관      오 유 진
- 싱가포르무역관      이 정 현
- 방콕무역관      윤 장 옥
- 자카르타무역관      허 유 진
- 통상지원팀      김 미 옥

Global Market Report 19-093

## 최근 미중 통상분쟁의 확산 동향

- 발 행 인 | 권평오
- 발 행 처 | KOTRA
- 발 행 일 | 2019년 9월
- 주 소 |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 
(06792)
- 전 화 | 02-1600-7119(대표)
- 홈페이지 | [www.kotra.or.kr](http://www.kotra.or.kr)
- 문 의 처 | 통상지원팀  
(02-3460-3388)
- I S B N | 979-11-6490-032-9 (95320)



---

# Global Market Report

---

**kotra**

Korea Trade-Investment  
Promotion Agency